

## 나의 실패 이야기

CAF뉴스레터는 2023년 실패연구소 에세이 공모전 'KAISTian Failure Story' 수상작을 연재합니다. 이번호에 실린 에세이는 '도전상'을 수상한 두개의 작품입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는 KAISTian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에세이공모전 수상작 연재

# KAISTian story



# You Are What You Set Your Mind Into

되고자 한다면, 될 수 있다.

Sean Tristan De Guzman (KAIST 기계공학과)

이곳 카이스트에서 몇 개월 후 별 탈 없이 졸업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요즘 저는 가끔씩 제 학부 시절을 얼마나 건설적으로 보냈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카이스트의 공식 영자 신문인 더 카이스트 헤럴드에서 스태프 기자로 활동한 시절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어쩌면 카이스트 재학 기간 중 특히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 정체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단시간 내 세련되고 논리 정연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기에 여러 상황에서 제 글쓰기 실력을 검증받았고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전 준비나 스크립트가 전혀 없던 수업과제를 위한 즉흥 발표나 투어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 영어 발표 실력에 대한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칭찬에 감사한 마음과 부딪힘을 느꼈으나 어느정도 가감하여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네이티브와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러한 능력은 필수이며 특히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라면 더더욱 필요한 소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겨울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제 언어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필요한 문서를 한국어로 1시간 내 작성했는데 동료분께서 제 글이 구조도 좋고 명확하다고 칭찬을 해 주신 겁니다. 저는 제가 아는 제한적인 한국어로 작성한 간단한 문서라 생각했으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분이 보기에 제 글의 구조가 두드러지고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분께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제한적인 의사소통 환경에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일관된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며 진심으로 제가 업무를 잘 수행했음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물론 스몰토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또는 비즈니스 매너 정도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었으나 저는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칭찬을 받을 때마다 부딪힘과 성취감을 잘 억눌러왔으나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해온 일의 어려움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편하지 않은 언어로 쉽게 이해되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언어 능력이 제 인생 중 여전히 최고의 실패 사례로 꼽는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일련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경험은 여전히 현재의 사고방식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제 의사소통 능력은 우수한 편이지만 제 학업 성적은 잘 받아야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매우 잘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았었지만 제 기준에서 볼 때 언어 능력에서는 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더 상위 수준의 영어 수업을 들을 정도는 되었으나 그러한 수업에는 언제나 네이티브 수준의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화려한 어휘와, 전문가처럼 듣기 좋은 강세와 발음, 목적에 맞게 짜인 일관된 문장을 구사했습니다. 반면 저는 논리 정연한 문단은 둘째 치고 유의미한 문장을 작성함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심한 무대 공포증도 있어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거나 적당한 발음을 구사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와는 확연히 다른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있으려니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늘어났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아팠던 경험은 그 당시 매년 개최되었던 영어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글을 쓰고 대회를 준비했지만 단 하나의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다수의 주변 친구들은 수상을 했고 수업도 월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능하고 너무 부족한 스스로에게 매우 크게 실망했습니다. 비록 공부는 잘 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그 의미는 미미했으며 그 공부 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와 가족 중에는 저에게 본인의 약점보다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조언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으며 돌아켜보면 진심 어린 걱정이었으며 그 조언 대로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어진 모습 외에 더 큰 뭔가를 달성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싫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는 느낌은 더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그 다음 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출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모든 문장과 논지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다듬었습니다. 여러 기사를 샘플로 보며 다수의 글



쓰기 스타일이나 작문 방법과 팁 등을 익혔습니다. 또한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의 의견을 조심스레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글을 다듬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전 패배의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 도전한 것일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일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굴의 정신보다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학생이라는 편견을 깨고 싶었고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 모든 생각과 이를 표현하기 위해 쏟아 넣은 노력이 매우 잘 드러난 제 눈에 너무나 아름답게 쓰여진 응모작을 제출했습니다.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든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결국 제 글은 전체 참가작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뻐고 한계를 뛰어넘은 제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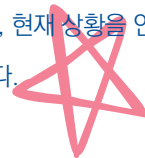
이때부터가 제 성장스토리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해 저는 또 다시 대회에 참가했고 2개 에세이를 출품하여 2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는 관련이 없지만 학교에서 진행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도 도전하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 재학중인 지금 저는 더 카이스트 헤럴드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매번 동료 작가나 편집자로부터 면밀한 편집과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출했던 모든 글이 수정과 대안으로 뒤범벅이 된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실력을 의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이런 다양한 시련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과 글 모든 형태로 소통함에 있어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학문적 및 기술적 능력만큼이나 언어 능력에도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물론 성격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 덕분에 제 한국어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법을 더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제 인생 경험에서 저는 크게 3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자’입니다. 앞선 스토리와 상반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한계를 뛰어 넘어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그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성장에 방해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대회를 준비할 때 저는 실제 글쓰기에 앞서 몇 시간 또는 며칠간 중요 정보를 먼저 읽어봤습니다(여전히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변 우수한 친구들을 따라 바로 글쓰기를 시작했던 때와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미 글을 잘 썼고 눈을 감고도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었으나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다른 방법을 써야 했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적당한 속도로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단 시간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교훈은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하라**'입니다. 목표를 향한 개인의 여정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로부터 영감을 얻을 필요는 있었으나 타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오며 제 동료들과는 다르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깊이 있는 어휘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어민 영어 사용자는 아니기에 화려함보다는 이해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미국식 억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각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기 위한 수준의 억양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많은 부담을 덜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정말 성장에 중요하다고 싶은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최고의 교훈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했을 때는 너무 기뻛고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 글쓰기 및 발표 능력을 늘리고자 노력했을 때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및 컴퓨터과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을 때도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할 만한 과거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전혀 다른 이공계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면 해도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력 등의 외적 원인으로 스스로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고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결단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지력과 현실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